

■ 본문

고전 3:4-15

■ 시작 찬송가

304장(통 404장)

■ 헌금 찬송가

210장(통 245장)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터에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불로써 시험받는다 말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공적을 쌓으면 하나도 타지 않고 하늘의 보화로 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쌓은 공적이 불에 타지 아니할 것들이 되도록 영적인 것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생각과 시선으로 육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으로 영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당파를 짓고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육적인 시선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꾸고 교회와 사역자를 바라보아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1) 사역자

‘사역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고, 일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밭에 한 사역자들이니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온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διάκονος)’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종 드는 종’을 가리킵니다. 신약 성경에는 종, 복음의 일꾼, 교회의 집사라는 말에 ‘디아코노스’가 쓰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높게 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고전 3: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나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밭에 한 사역자들이니라

우리 모두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사역자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직책에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전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모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한 가지 목적으로 삼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천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천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받든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역자의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길러주시고, 뜻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고전 3:7-8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 루터의 ‘천직’

‘신으로부터의 천직 또는 소명(召命)’의 개념으로 직업을 인식하였는데, 16~17세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M.Luther)의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을 통해 대중화 된 개념이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새로 세워지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좋은 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품에 두고 친히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온전히 맺히기까지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마 16:25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3) 하나님의 집

교회 내에 문제가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터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에서 올라온 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 아닌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바로 서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에 터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진짜 참 교회가 되고 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고전 3: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가 우리의 육적인 사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금방 타서 없어질 풀과 나무로 짓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는 시험과 연단 앞에서 쉽게 불타 없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니다.

그러나 영으로 세우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우리의 공적과 헌신은 하나도 타지 않고 하늘의 보화로 쌓일 것입니다.

고전 3: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사 43: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

우리 안에 육에 속한 열심이 있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 쌓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교회는 불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 ‘쉐티아’

솔로몬이 세운 제1성전이 무너진 후 지성소의 돌(쉐티아) 위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터(쉐티아) 위에 우리의 성전을 세워야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됩니다.

오늘의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 | |
|----------------|---|
| 공동 기도 제목 |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
| |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
| |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
| |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
| |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
| |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